“진정한 기도, 미워하는 사람위해 하는 것”

마음꽃을 줍다

덕조스님 글 사진 | 김영사 펴냄 | 1만 2900원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서 작은 산길로 50분 정도 올라가 대나무 터널을 지나면 불일암(佛日庵)이 나온다. 경내에 들어서면 텃밭과 아담한 절집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려시대에 지어져 1975년 법정 스님이 중건한 도량이다. 법정 스님은 이곳에서 수많은 책을 집필했다. 〈마음꽃을 줍다〉의 저자 덕조 스님〈사진〉은 송광사로 출가해 불일암서 법정 스님을 처음 모시며 시봉했다. 법정 스님은 입적하신 뒤 생전 아끼시던 불일암 후박나무 아래 모셔졌고, 수십 년 동안 법정 스님의 곁을 지켰던 첫째 상좌인 덕조 스님은 조용히 불일암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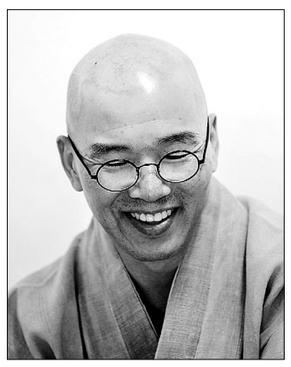
이 책 〈마음꽃을 줍다〉는 前 길상사 주지이자, 현재 송광사 승가대학장인 덕조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집으로 산골에 살며 느끼는 일상의 기쁨과 자연의 숭고한 아름다움, 그 속에서 정리한 삶의 사유를 정감나는 사진들과 함께 들려준다. 글은 간결하고 담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고, 사진은 꾸밈없이 진솔하다. 섣불리 위로를 하거나 급히 손을 잡아주진 않지만, 편안하고 따뜻하게 미소 짓는 100편의 글과 사진을 보다보면 시나브로 그 속으로 빨려들어 읽는 이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킨다.

“꽃이 피는 봄날에는 풍경을 새로 고쳐 달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감사함을 느낀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시절인연은 항상 거기 있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듯 자연 속에서 영성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며 발견한 진리는 단순하기에 더 오래 마음에 머문다.” 우리도 한번쯤은 생각해 본 것들이지만 바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묻어두고 살았던 삶의 진리들이다.

스님은 이 책에서 말한다. 삶은 시간속에 잠시 존재할 뿐이라고.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찾아오고, 어둔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 삶의 공식도 어찌 보면 단순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고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모든 것은 시간 속에 잠시 존재하고 안개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우리 삶도 그러하다”

매일 부지런히 기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마음을 바르게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유효하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진정한 기도란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다. 선한 삶의 자세 앞에서는 종교의 경계조차 무색해진다. 산속에 살아서 유유자적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좋든 싫든 관계가 생기고 타인에 대한 견해가 생긴다.



덕조 스님의 첫번째 에세이집

100편 글과사진… 따뜻한 울림 전해

홈페이지 연재글 중 가려뽑아 실어

그 견해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자 다르고, 해결법도 모두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다툼이 생긴다.

이 책은 이렇듯 95편의 짤막한 단상과 5편의 에세이, 71개의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덕조 스님이 자신의 홈페이지(http://simplemind.org)에 연재한 글과 사진 중에서 가려 뽑고, 새로 에세이를 추가했다. 도심, 산골, 여행길 등 어디서 머물든, 12년 동안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 적어 많은 사람들의 지친 일상에 청량한 바람이 돼준 작지만 섬광 같은 글들을 모았다.

곁에 두고 삶이 힘들거나 맘이 흐트러질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글들 중에서도 특히 법정 스님과의 만남 부분은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수행으로서나 글로서나 무소유의 표상이신 스승, 법정 스님의 곁을 지키며 “은사스님의 그림자에 누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마음”이라는 저자의 술회에서 스승을 존경하고 염려하는 제자의 깊은 마음이 느껴진다.

일찍이 법정 스님께서 행자 시절 저자의 됨됨이를 알아보시고, 상좌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깨고 저자를 첫 상좌로 맞아주셨다는 대목에서는 저자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생생하게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진다. 여행을 다녀오실 때마다 면도기와 만년필 등 선물을 살뜰히 챙기셨다는 스승, 산과 같은 스승이 계시기에 그 그림자에 누가 될까 자신의 글을 세상에 내놓지 않겠노라 다짐한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은 스승이 떠나신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도 다르다. 얼굴이 다르듯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우리 앞에는 삶이라는 똑같은 주제가 놓여 있다. 저자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도 자신의 몫이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서툴러도 힘들어도 내 마음의 꽃은 내가 피우는 것이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각자 자신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달리면서도 명상 할 수 있을까?

마음에 대해 달리기가 말해 주는 것들

사콩 미팜 지음 | 강수희 옮김 | 불광 펴냄 | 1만 4천원

스님이 달린다

저자는 전 세계에 걸친 명상 공동체 ‘샴발라’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이다. 한마디로 수많은 제자를 둔 티베트 스님이라는 얘기다. 이 스님이 얼마나 달리기에 푹 빠졌느냐 하면, 해외에 나가 하루 16시간이 넘게 행사를 진행할 때도 새벽에 1시간 먼저 일어나 달리고, 발바닥에 11cm짜리 물집이 생겼어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번개가 내리치고 우박이 쏟아져도 달리고, 해발 3.9km에 달하는 고산지대에서 달리다 고산병에 걸리고, 눈이 허리까지 쌓인 날에도 눈밭을 헤치고 나가 달릴 정도다. 다만, 달리되 그냥 달리지 않고, 자신의 전공인 명상을 적용하며 달린다.

부드럽게 ‘저스트 두 잇!’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무리해서 뛰는 사람들이 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공격적으로 임하면 일부를 성취할 수 있지만 부드럽게 임하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부드러운 몰입’을 권한다. 털을 고르는 호랑이처럼 순간을 만끽하며 부드럽게 달리라는 뜻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달릴 수 있을까? 미리 정해 둔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잘 지켜보며 그에 맞게 미세한 조정을 하며 달리면 된다. 그러한 능동적인 변화는, 러너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재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달리기에 빠져들게 만든다.

대체로 공격성은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발현하며,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타인은 물론이고 자기에게도 관대하지 못해 일과 인생을 그르치곤 한다. 이에 반해 부드러움을 갖춘 사람은 인생이 끝없는 관심이 필요한 여정임을 이해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저스트 두 잇’ 한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달리기

이 책에는 네 단계의 달리기가 소개된다. 호랑이의 달리기, 사자의 달리기, 가루다의 달리기, 마지막으로 용의 달리기. 호랑이의 달리기는 앞에서 말한 부드러운 몰입의 달리기다.

사자의 달리기는 부드럽게 몰입하여 달리는 경험의 생생함을 누리는 것이다. 볼을 스쳐 지나는 바람, 새벽의 차가운 공기, 화사한 햇살, 싱그러운 초록을 알아차리며 기쁨을 만끽하는 황홀한 달리기다. 그 아름다운 세계와 자기가 이어져 있음을 자각하며 자기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는 단계다. 가루다(사람의 팔을 가진 상상 속의 새)의 달리기는 도전이다. 우리는 자기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몰라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희망한다.

모두를 위한 달리기

용의 달리기는 상상력의 힘이 발휘되는 달리기다. 이 단계에서 달리기는 개인적인 행위에서 사회적인 행위로 변화한다. 달리기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이뤄 내는 상상력의 힘. 용이 비를 내리듯 달리기는 세상에 공감과 사랑을 퍼뜨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바람의 말(windhorse)’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호랑이, 사자, 가루다, 용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확립된 이 기운은 부드럽고 생기 있으며, 명철하고 자비로워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라는 좁은 껍데기를 벗고 더 크고 넓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저 달리는 순간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관대한 태도로 꾸준히 달린 러너들은 결국 이 기운을 공유하고야 만다.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참여한다. 자기를 위해 시작한 달리기는 모두를 위한 달리기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한다. **김주일 기자**

“공덕의 통장 계좌 늘어야 삶도 행복”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

이란 지음 | 사유수 펴냄 | 1만 7천원

이 책의 저자 이란 회장〈사진〉은 여여원을 설립해 지난 사반세기 동안 가정법회를 운영해 오며 여성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극대화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아파트집을 가정법당으로 개방해 왔다. 계기는 생각마저 단조로웠다.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시서화와 차를 공부하고 남편을 섬기며, 아이들 키우는 일에 치중하고 살던 이 회장이 집을 방문한 한 스님의 말을 가슴에 새긴 것이 계기였다. 그 스님은 이 회장의 집을 보며 “보살님 집이 불자들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이 회장은 20여년 동안 한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가정법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 회장은 이 책에서 “인과와 윤회를 알고는 인생의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된다는 자각이 들었고, 그것이 인생을 바로보고 잘 살게하는 묘약이란 생각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처럼 좋은 가르침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집에서 법회를 연 것”이라고 가정 법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처음엔 도반들과 함께 집에서 1년에 한번씩 법회를 가졌다. 언젠가는 100여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다. 3년 정도 지나면서 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정기법회를 열자는 서원을 세웠다. 공부하는 모임도 자연스레 만들어졌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뜻의 ‘여여회(如如會)’ 였다.

저자는 “한 달에 한번씩 법사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열면서 20년 동안 내가 부처님 법에 물들면 가족이 물들고, 가족이 물들면 이웃이 물들고, 이웃이 물들면 사회가 물든다는 생각으로 신앙띠잇기 운동을 펼쳐왔다”며 “이 운동을 모임의 이름처럼 여여하게 여법하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격려와 응원 덕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저자 교리공부 뿐 아니라 공부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다. 전국 사찰을 돌아다니며 펼친 다양한 보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선방대중 공양을 비롯해 운주사, 연흥사, 거조암 등 여러사찰의 불사동참, 경전이 필요한 사찰에는 한글대장경, 티베트대장경 등을 봉헌하고 전국에 불교서적 1만여권 이상을 법보시하기도 했다. 저자는 “퇴락했던 절이 불사 후 새로 태어난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뿌듯했다”며 “은행통장은 숫자로 보이지만 공덕통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덕통장이 쌓여야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겠는가”하고 술회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회장은 공덕통장의 계좌 잔고가 많이 쌓여서인지 난소암 진단을 받았던 죽음의 위기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행복해 했다.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한쌍이다.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했다. 과거에도 행복했고, 이 순간도 행복하다. 그 어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었다. 순간순간 즐겁게 살아왔기 때문에 죽는다해도 미련은 없었다”고 당당히 밝혔다.

저자는 특히 현대불교신문과 인연이 깊다. 오랜 장기독자임과 동시에 20년전 현대불교신문서 주최한 신행수기 공모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 책에 나온 글도 지난해 현대불교신문에 연재한 글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불자로서 여성으로 또한 어머니와 한 지아비의 아내로 살았던 기억의 편린들을 털어놓았다. 이어 4

20여 년간 가정법회 운영 회향

‘여여회’ 조직해 신행활동 활발

장에서는 그동안 저자와 인연을 맺었던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인연담을 소개했다. 특히 이 책서 인상적인 것은 에필로그다. 유서를 미리 써놓았다. ‘행복했던 세 남자와의 인연, 그리고 굿바이’란 제목으로 그동안 두 아들과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말과 고마움을 글로 표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라는 박경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심정도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고백한다. 그리고 불교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는게 어려웠을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도 밝힌다.

화려한 글솜씨나 미사여구가 들어 있진 않아도 책장을 넘기면서 진한 감동을 전해주는 비결은 바로 진실함일 것 같다. 책장을 다 덮고 나면 진실한 참불자의 고백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지며 초발심이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저자 이란 회장은 현대불교신문 제 1회 감사편지 공모 시상식장에서 이번에 출간된 〈승만의 꽃다발을 당신에게〉를 50권 법공양해 참석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